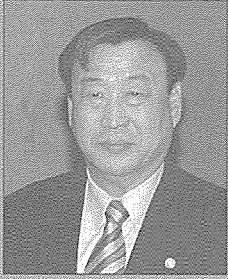


에너지안보, 국가생존과제로 인식할 것



이희범 장관

희망찬

丙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를 누비며 땀 흘려 일하고 계시는 우리 무역·산업·자원 역군 여러분께도 따뜻한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해 사상 유례없는 고유가 행진 속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산업발전을 뒷받침하는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세계 각국의 에너지확보 경쟁에 대응하여 정상외교와 자원부국과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자원의 지구 공급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선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과거 19년간 미원의 과제로 남아있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선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은 큰 성과였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경제는 아직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내수 회복은 생각보다 더디고 서민들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높게 치솟은 기름값 때문에 기업과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실물경제 주무장관으로서 올해에는 우리 경제가 최대한 빨리 활성화되고 나아가 2008년 무렵 '세계 산업4강 - 무역8강'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쁨을 든든히 하는 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와 투자 등 여러 부문에서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를 접목시켜 실물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업종별 특성과 미래의 발전 비전에 맞는 투자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투자 활성화를 통하여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도록 하는 한편, 이공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이끌 초일류 성장산업군을 계속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와 전자 같은 주력 기간산업은 현재의 세계일류 경쟁력을 유지·발전하도록 뒷받침하고, 차세대 성장동력분야에서는 조기 산업화를 통해 미래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블루오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세계 유수의 전문가나 기관들은 고유가 체제가 새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에너지안보를 국가생존차원의 과제로 인식, 범정부적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을 더욱 확대하여 에너지 자주공급률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으며,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들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에도 무역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확대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의 능동적 참여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넓혀나가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계 10위권의 경제·교역규모에 걸맞게 외국기업이 자유롭게 국내로 들어오고 우리 기업 역시 자유롭게 외국에 진출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글로벌 경영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

올해에도 대내외적으로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해 나간다면 그 어떠한 도전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올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합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